

# 靑 “김태우 진술에만 의존해 또”...의도성·공정성 의심

## ■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이른바 ‘김태우 진술’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소위 ‘하명수사’ 의혹 등과 관련,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특히, 과거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다 검찰로 복귀한 수사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3일 브리핑에서 검찰을 겨냥,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고 강력 비판하고 4일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 들면서, 양측의 충돌은 이제 정점으로 치닫는 흐름이다.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과정에서 이뤄진 지 1년 만으로, 문제인 정부 출범 이후엔 두 번째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경내로 들어가 필요한 자료를 가져가지 않고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협조하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바 있다.

일단 청와대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어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

지난해 12월 이어 두 번째

“요청 자료 지난해와 대동소이”

하명수사 의혹 조사결과 발표도

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다”며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해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 특히,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의도성’과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반응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으로 불리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문제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과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은 무관하다는 점, 그의 울산행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 때문이었다는 점, 첩보 처리 과정에서 정리와 편집은 있었지만 추가 비위사실을 덧붙인 바는 없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또 고인의 울산방문 활동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고인이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담긴 특별 실태조사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A 행정관이 외부에서 받은 제보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며 ‘민정수석실이 특감반 자체조사(첩보)를 생산해 경찰에 수사토록 했다’는 의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연풍문에 관계자들이 출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혹을 전면 부인했다.

동시에 청와대는 고인 등 울산에 내려간 특감반원들이 울산시장 수사에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고 대변인은 “각종 의혹과 의혹보도가 뒤를 잇고 있다”며 “고인과 전혀 무관한 사안들을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지 말아달라).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것들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게 보도에 신중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과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검찰 수사관이 숨지는 약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청와대와의 전면전을 불사하더라도 수사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내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둔 가운데 이번 의혹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판세를 좌우할 대형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이처럼 정겹고 순박한 채소가 어디 있을까



김은영의 '그림 생각'



안혜경 작 '고마운 호박'

(292) 호박

“호박꽃이 꽃이나/비웃음을 받고요 /울퉁불퉁 동글납작/내 용모 보기 흉 해도/겉만 보고 속만 말 건/사람 아니 호박입니다/난 속살 단맛 있고/영양가 높고/짐을 낚도 까닥 않는/잠들성 좋고???”

어린 시절 별명이 ‘호박 부대’라 불리는 친구가 있었다. 여성스럽지 않고 조금 어둡어둡한 인상이 울퉁불퉁한 호박을 닮아서였는데 정말 호박처럼 마음씨 동글고 모가 없어 한 번도 그 별명에 언짢아 한 적이 없었다. 오래전 우리 집에 한 점 걸렸던 호박꽃 그림 속 화제였던 ‘호박의 자부’라는 시를 읽을 때마다 그 친구 별명이 동시에 생각났곤 했다.

그렇게 호박은 오래도록 ‘무생감’의 대명사였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호박만큼 정겹고 맛있고 조형적으로도 예술적 소재가 되기에 순박한 채소가 흔치 않음을 깨닫게 된다.

인양 출신으로 현재 공주에서 작업하고 있는 안혜경 작가(1964~ )는 몇 년 전 해남에서 레지던시 작가로 머무르던

서 가을이면 온 들녘에 가득 쌓여있는 높은 호박덩이들을 마주한 후 그 감동으로 아예 ‘고마운 호박’ (2017년작)이라는 작품을 연작으로 그리고 있다.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면서 그림 그리기는 화가를 꿈꾸었던 작가는 해남에서 따뜻한 봄날 호박 모종을 심고, 서투르지만 열심히 풀 뽑고 물주면서 호박을 가꾸었다고 한다. 잠시만 한 눈 팔면 호박밭엔 무성한 풀이 주인이 되고 보물 찾듯 호박을 따낸 기억으로 그림 농사를 지었던 것 같다.

화폭 속 호박은 해남 붉은 땅 기운으로 잘 익어 주황색 등불처럼 온 대지를 환하게 밝히는 듯하다. 아침을 맞이하는 나팔꽃을 만나고 빨간 동백꽃에 빠졌다가, 호박밭을 드나들었던 작가의 사계절이 그림 한 점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북이 넘글케 굴러들어올 것만 같은 호박 그림도 들뜬 잡초도 모두와 고마운 자연의 선물이고 가족이리라. <광주시립미술관 학예관·미술사박사>

## 민주 “검찰개혁 막기위한 몸부림” 한국당 “친문 게이트 수사 방해말라”

청와대 압수수색 정치권 요동

민주 항의 방문·특위 가동

바른미래 “수사 협조해야”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을 향해 사실상의 “전쟁”을 선포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검찰이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 무리한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특검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선거제와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검찰 특검 수사를 비판하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검찰 공정 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특위는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항의 방문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 양상이 집권여당과 검찰 간의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결백하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동수사단을 꾸려 모든 증거와 수사 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철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낚날이 밝혀야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최근 검찰이 보여주는 일련의 모습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라며 “검찰이 수사권을 무기로 검찰개혁을 저지하려고 한다 해도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준엄하게 경고한다. 검찰이 이렇게 직무유기 하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개입과 수사권 남용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위 첫 회의를 5일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설 최고위원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것”이라며 “(현재 검찰 수사에) 편파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에게 보고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4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친문(친문재인)농단 게이트’ 의혹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한다고 맹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울산뿐 아니라 경남 여러 지역에서 경찰을 앞세워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기획하고 경찰이 실행한 선거개입 의혹이 진실로 밝혀지면 이는 정권의 운명이 달린

중대사”라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수사지시 잘 해오지 않았다. ‘장자연 사건’ 재수사하라, ‘김학의 사건’ 재수사하라, 직접 지시하지 않았나”라며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린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하라는 지시는 왜 내리지 않나. 왜 침묵하느냐”라고 되물었다.

바른미래당도 4일 검찰의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 관련,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혹시라도 청와대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나머지 사실을 축소·은폐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수사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히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안과 1566-9988